6

11월 셋째 주

셀그룹교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1.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작업
2.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1)

● 읽을 말씀 마 24:29-31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의 일곱 머리" 의 의미 중 일곱 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의 선결과제로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보겠습니다.

1.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작업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휴거설(통과설) 중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색안경을 낀 것처럼 계시록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적으로 쟁쟁한 신학자인 리차드 리이터, 폴 파인버그, 글리슨 아처, 더글라스 무가 공저한 「휴거: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휴거설의 근거」 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장들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환난 후 휴거설이 성경적이라는 최종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왜 다른 견해들이 틀렸고 통과설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시기를 다루기 전에 "입신간증에 휘둘리면 안 된다!" 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빈 포드의 「죽음 저편」, 메리 백스터의 「내가 본 지옥」, 토마스 주남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에 보면 공중재림 때 휴거가 발생하고 그 뒤에 대환난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환상이나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이 옳다는 가정 아래 연구해 보았지만, 환난 전 휴거설이 비성경적이고 통과설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신 간증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그것을 근거로 교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원칙에는 절대로 예외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모든 계시들을 분별하고 오직 성경에 근거

해서만 교리를 세워야 합니다.

2.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성경의 명확한 증거

(1)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

다니엘 7장에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보았는데, 이것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재림까지 인류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21-22).**"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해 천사가 해석을 해주면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25-26).**" 라고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대환난이 예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중재림이나 휴거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본 꿈과 해석 어디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상재림 때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장의 표현에 의하면 성도들은 휴거하지 못한 성도들이 아니고 전체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지상재림이 있을 뿐 공중재림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설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2) 다니엘 12장 1-2절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1).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2).**"

1절은 전무후무한 대환난, 2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 즉 휴거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대환난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후 휴거설 즉 통과설이 옳습니다.

그러나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폴 파인버그는 "이 부활(12:1 환난의 때가 있음 다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희(다니엘의) 백성'이라 호칭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며 이스라엘과 교회의 부활을 나눕니다. 워치만 니는 휴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무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24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후에 마지막이니**"라는 구절을 오해하여 그 뒤에도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마지막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며 한 차례 더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단 한 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변화하거나 부활하여 휴거됩니다. 따라서 폴 파인버그의 주장은 학자답지 않은 심히 무지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1-2절은 환난 후 휴거설이 옳다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3)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언!

마태복음 24장 1-14절은 말세의 징조 일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공중재림이나 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대환난으로 건너뜁니다(15-28). 예수님은 대환난 후에 재림하실 것과 휴거(29-31)가 발생할 것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대환난을 포함한 모든 징조들을 통해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32-33). 그리고 앞부분이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24:3)에 대해 각각 대답해 주셨습니다(34-36). 예수님의 말씀에서 대환난 전에 공중재림이나 휴거가 없기 때문에 36절은 당연히 지상재림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지상재림에 대해 끝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자세한 묘사(40-42)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이 전부가 아니라 25장까지입니다.

지상재림을 말하다가 25장은 “그때에” 라는 말로 열 처녀 비유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당연히 지상재림입니다. 그리고 열 처녀 비유는 휴거에 대한 비유로, 이때(지상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지상재림 때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6-9). 그 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둘 다 지상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각 비유들 끝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12).**” ,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나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30).**”,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46).**”라는 단지 휴거가 아닌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세 가지 모두 지상재림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휴거는 환난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의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이므로, 휴거의 시기에 대한 논란은 이것으로 100% 종결입니다.

한편, 많은 이들이 마태복음 24장 40-41절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표현 때문에 준비된 자는 휴거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이 옳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뒤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7년 간의 기회가 있어서 그들이 7년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이어 나오는 두 비유(달란트, 양과 염소)를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 양이든 염소든 주님이 오시는 같은 날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두 번이고 공중재림 때 휴거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성경과 다른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다시는 그런 주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 나눔과 적용

휴거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돌아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였을 때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